

# “한국 섬을 새롭게 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총 9회의 과정을 운영하며 국내 섬 전문가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을 알린 한섬원아카데미. 중국 출신으로 부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리아웨이 씨는 8기 수강생으로 한섬원아카데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양 관련 전공 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한섬원아카데미의 장점과 발전 방향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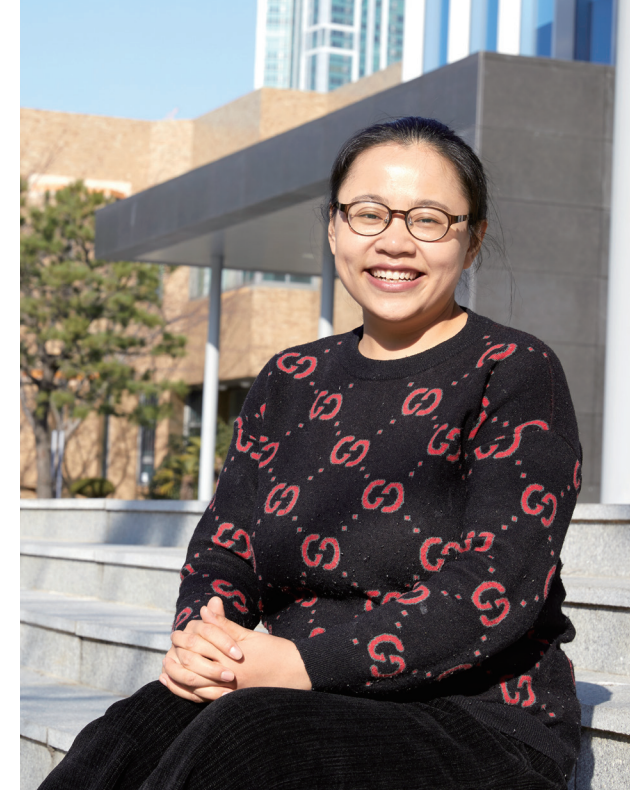
사진. 임재우, 신안군청

한섬원아카데미  
8기 수강생

리아웨이 씨  
인터뷰



2014년 8월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대학교 어학당, 석사 과정을 거쳐 현재 부경대학교 중국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리아웨이 씨는 해양 분야, 그중에서도 섬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본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해양 및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한국과 중국 이어주는 매개체 되고파

리아웨이 씨는 중국인으로서 중국 해양 정책에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중국의 바다나 섬이 한국의 바다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한국에서 해양정치외교 관련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및 섬 정책을 공부한다면 중국과의 교류에도 힘을 보탤 수 있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바다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기에 함께 발전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의 해양 정책을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섬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섬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중국과 공유하고 중국의 사례도 한국에 소개하는 등 서로 교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리아웨이 씨의 향후 계획이자 소망입니다.